

삼성 비자금 사태와 윤리경영

❖ 뇌물은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한 삼성의 비자금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이미 재판이 끝난 370억 원에 달하는 2002년 대선 자금 출처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할값 배정 수사·재판 때 증인·증언 조작에 대한 내용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사랑 받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과오가 있다면 진실되게 그 죄과를 인정하고 불건전한 경영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결국 삼성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중에 언론은 유독 삼성이 제공한 떡값과 관련된 X파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 측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한 이견희 회장의 로비 지시사항 문건 내용도 공개가 되었다. 그 내용은 이회장이 검사, 판사, 국회의원, 국세청, 금융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에 대한 로비 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것이었다.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쉽게 말해 뇌물 금액과 공여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뇌물은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공정 경쟁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분배의 문제다. 중소기업과 차별성을 이야기할 때, 벤처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자본과 뇌물 앞에서 창출한 사업영역 내에서 선점 기업의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너무도 쉽게 그 사업 영역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업은 벤처가 창출하고 열매는 대기업이 가져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법이 허술하다기 보다 법을 교란시키는 뇌물의 문제다.

❖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마인드의 문제

뇌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 분식회계를 예로 들면 대우가 파산할 당시 그 규모는 41조, SK의 분식회계 규모는 1조 2000억 정도였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21세기 최대의 회계부정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 엔론을 파산으로 이끌었던 분식회계 규모는 1조 5천억이었다. 그런데 엔론의 CEO는 25년 형을 받았다. 고작 6개월 살다가 나온 우리와 많이 다르다.

또 한가지,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인 PwC(PricewaterhouseCoopers)

이다. 엔론 회계 부정사태 전에 세계 최대규모의 회계법인은 아서앤더슨(Arthur Andersen)라는 곳이었다. 하지만 엔론사의 외부 회계 감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모든 회사가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계감사를 담당할 회사가 대우나 SK와 연관되어 파산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내 기업은 그동안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의 사회환원과 사회공헌 약속을 매개로 면죄부를 받아왔다. 일명 ‘그린워시(Green-wash)’ 전략이다. 마치 사회적책임 활동인 것처럼 기업 이미지를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독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조계의 잘못이 한 몫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은 판례가 되어 악습은 반복되고 있다.

뇌물은 법과 윤리, 사회적책임 모두를 망가뜨리는 행위다. 윤리경영은 무엇보다 경영자의 마인드의 문제이고 종업원 참여의 문제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기업 최고 경영자가 지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 핵심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뇌물 공여 방식까지 언급했다는 것이 얼만큼 부패에 친숙한 경영 마인드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하겠다.

더구나 지시사항도 아니며,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헤명할 수 있는 삼성의 모습에서 기업윤리와 사회적책임 의식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폭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의 향방에 따라 그 반응을 결정하겠다는 삼성의 태도에서 신뢰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